

방통위,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하나

이효성 위원장에 이어 고삼석 상임위원도 자진 사퇴 고삼석 “사의 곡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포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5개월을 남겨둔 10월 21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쯤에서 상임위원의 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몇 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보다는 역량 있는 분이 새로 오셔서 새해 업무계획을 세우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자리를 비워 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사의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통위 공무원에게 사비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을 선물했다”며 “이 책은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만 가짜뉴스로 보고 있는데 이 책 저자를 방통위원 후보로 검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

장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공식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소문은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몇몇 매체를 통해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 기자 출신으로 KBS와 SBS 라디오 칼럼니스트,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얼마 전 이 총리가 100여 권을 구입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에 배포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책의 저자이다.

업계에서는 “이 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한 책을 권한 것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신호탄이고,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함께 후임 방통위원이 이를 진두지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후임 방통위원 임명 후 가

짜뉴스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이다.

하마평에 오른 김 교수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청와대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고 상임위원은 10월 23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송구스럽다”며 “후임을 둘러싼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 사의 표명과 후임자가 누군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측 위원으로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정권 중반기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 변화가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원들은 고 상임위원 사임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 추천 위원인



©뉴시스

김석진 부위원장은 “방통위 운영에서 정부 측 위원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부 위원은 차관회의에 참여한다”며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임기 도중 둘 다 교체된 것은 방통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전숙희 sh45@kobeta.com

KBS 국감, 시작부터 고성…유시민 논란 놓고 난타전

KBS 기자 성희룡 논란…“KBS가 유튜브에 모욕당한 것”

KBS, ‘알릴레오’ 성희룡 발언 아주경제 기자 고소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KBS 기자 성희룡 논란으로 얼룩졌다.

10월 17일 열린 국감은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이 노트북에 붙인 ‘謹用 KBS’ ‘양승동 나가레오’ 등의 피켓을 두고 고성이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감장에 들어올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게 돼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지라도 국회법

안에서 해 달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여 있는 피켓을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은 관철지만 공영방송이 없어져선 안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장님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피켓을 붙인 채 질의를 이어갔다.

최대 이슈는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거진 KBS 기자

성희룡 논란이었다. 앞서 15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은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수사 내용을) 술술 흘렸다”며 “검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기자협회는 강력 항의했고, 유 이사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룡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자와 KBS 기자협회, 시청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KBS가 유튜브에 모욕당했다”고 지적한 뒤 “자사 직원이 유튜브에서 성희룡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유시민 씨가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알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보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성희룡에 대해선 법적조치

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속 기자가 신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 신체적 상해와 성희룡이 차이가 있느냐”고 물은 뒤 양 사장이 “차이가 없다”고 답하자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20년 전 법조에 출입하기 시작했던 여성 기자 전체의 문제이고, 법조 취재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는지 세간의 의혹과 선입견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양 사장의 리더십 부재를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크(PB)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 이사장이 KBS 보도에 의혹을 제기하자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조국 관련 특별취재팀을 만든다고 했다”며

“(유 이사장이) 정권 실세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때 담당 기자들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이어 성희룡 논란이 일었음에도 사장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1인 미디어에도 조롱받는 KBS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조사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사위는 시청자위원과 언론학자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시청자위원을 선정하는 이름을 확인했더니 정필모 부사장과 본부장 5명, 센터장 등 전부 본부노조(2노조) 출신”이라며 “이 사람들이 선정한 위원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또 “KBS에는 본부노조밖에 없느냐”며 “1노조나 공영노조는 없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10월 22일 “KBS와 개인 기자 4명 자격으로 장 기자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악성 댓글을 남기거나 비슷한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14명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KBS는 “건전한 비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부 개선에 반영하겠지만 악의적인 비방 행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OTT 규제, 방송 산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국방송학회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 법 규제 체계’ 토론회 개최



지상파방송 3사와 SK텔레콤이 손잡은 WAVVE가 공식 출범하고, CJ ENM과 JTBC도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OTT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규제 체계에 관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OTT 규제만이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

임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글로벌 OTT 규제 현황과 국내 관련 법 규제 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와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학술교수는 각각 영미권과 유럽 및 일본의 규제 현황

을 설명했다.

김도연 교수는 “미국의 경우 물리적 망이 아니라 서비스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네트워크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 다른 부분이다.

또한, 김도연 교수는 “규제의 강도는 낮으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교수 역시 “콘텐츠 산업 활성화, 미디어 생태계 복원, 공공 및 공익성의 재조명 등 규제 원칙과 철학을 수립한 후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현재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방송

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형식적 규제 마련을 우려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노동환 WAVVE 팀장은 “OTT 규제라고 하면 규제가 공백 상황이고 프레임이 모호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각각의 법에서 이미 내용적·사업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장 초기 단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산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우려를 표했다.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은 규제의 형평성과 집행력에 대해 언급했다. 박 팀장은 현재의 규제도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

을 제기하면서 “국의 사업자에게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유정 MBC 정책전문위원은 기존 방송 규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OTT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많지만 과연 그럴까 의문이 있다”면서 세계 시장과 비교해 우리 시장의 미미한 성숙도와 콘텐츠 제작 시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 전체를 위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 위원은 “이제는 규제의 패러다임에서 지능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며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MBN 압수수색…시민단체 “종편 출범·특혜 재조사 필요”

방통위원장 “MBN 차명주주 면밀히 검토 중”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종편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

섰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출범 당시 은행에서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 원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는 MBN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개국 특혜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 채널A, TV조선, JTBC의 재승인 심사가 과거 정권처럼 봐주기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승인과 재승인 심사를 통해 존재 근거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MBN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

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0월 21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2011년 당시 MBN 주주 명단을 보면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이 몇 명인지, 차명주주가 있는지 확인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차명 투자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재승인 심사에서 왜 걸러내지 못 했냐고 지적하자 “조사 과정에서 직무에 소홀했던 부분이 확인되면 국민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남북 축구 ‘녹화 중계’도 못 봐”…과방위 야당 의원들 쓴소리

양승동 사장 “방송용 아닌 기록용” “대행사에 조치 취할 것”

월드컵 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 방송이 녹화 중계마저 무산됐다. KBS는 10월 17일 “오후 5시 방송 예정이었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 남북한 간 경기의 녹화 중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 등 지상파 3사는 경기 영상이 DVD 형태로 선수단을 통해 들어오는 대로 상태를 확인한 뒤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 17일 진행된 KBS 국정감사 자리에서 남북 축구 중계에 대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중계권료가 (통상 금액의 2배 수준인) 약 17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금을 얼마나 보냈느냐? 얼마를 퍼주고 떼였는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사장은 “통상 A매치 수준의 중계권료였고, 20%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면 3억 원 정도를 선금으로 보낸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중계 불발에) 많이 실망했고, 선수단들도 전쟁을 치른 것 같았다고 말했다”면서 “(KBS도) ‘북한 퍼주기’에 동참을 하니 적자 경영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꼬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녹화 중계 취소 이유를 물었다. 신 의원은 “예전에는 영상이 좋지 않아도 송출한 적이 있다”며 “일부에서는 남북 축구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북한이) 비신사적 매너를 보였다”고 하니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것이 염려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하면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가공해서 중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21일 열린 종합감사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기 전체 영상을 방송하라고 하자 양 사장은 “KBS가 공개하거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양 사장은 “KBS가 선수단을 통해 받은 것은 중계권으로 구입한 영상이 아니라 기록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축구 중계에 대한 계약을 대행사를 통해 진행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선하 baek@kobeta.com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 개최

박종인 KBS 편집감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제3회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시상식이 10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됐다. 박종인 KBS 편집감독은 국내 지상파 최초 비선형 편집 시스템 제작편집실을 신설한 노고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작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시상식은 2017년부터 개최됐다.

문체부 장관 표창은 △박종인 KBS 편집감독 △윤진희 JTBC 미술감독 △최은

아 음향편집기사 △권도경 수석 음향디자이너 △최세영 서울스튜디오 대표가 수상했다. 특히 박종인 KBS 편집감독은 예능 멀티캠 제작기법 개발과 영상효과 제작으로 NLE 편집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 감독은 수상 후 “모든 제작진을 대신해 받은 것 같아 죄송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후배 방송기술인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하자 “저도 입사 초기에는 특별

한 직무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으나 KOBA에 갔다가 NLE 장비 시연을 보고 편집이나 특영 업무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장비도 구매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상식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대중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제작진의 노고와 열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FM 라디오 통해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 서비스 시작

1차 사고 못지않게 위험한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 기대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 상황을 알리는 FM 라디오 경보방송을 10월 17일부터 서비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면 운전자의 사

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2%로, 1차 사고 치사율 8.6%의 5배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평상시에는 전파 음영 지역인 터널 내에서 운전자가 FM 방송을 원활히 청취할 수 있도록 단순 재송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송출

을 중단한 뒤 FM 방송을 통해 터널 내 경보방송을 하고 있으나, 경보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FM 방송용 88~108MHz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미터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2019 Shanghai Prolight+Sound 참관기



김태섭
SBS 기술기획팀 매니저

지난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Prolight+Sound가 개최되었다. 올해 17주년을 맞은 상해 Prolight + Sound는 아시아, 특히 중국의 프로 오디오와 조명 분야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상업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Messe Frankfurt와 INTEX Shanghai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전시 내용은 방송·공연 프로 오디오, 조명, 엔터테인먼트 및 이벤트 기술 부문으로 2002년부터 시작된 국제 악기 전시회인 Music China와 같은 기간에 개최된다.

전시회 개요

- 기간: 2019.10.10.(목) ~ 2019.10.13.(일)
- 장소: 중국 상해(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 2018년 참관객 수: 30,492명(KOBA 2019 참관객 수: 43,905명)

주요 전시 내용 요약

- 전시회장 구성: N1~N4 4개의 Hall에서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 N1: Full Range Products / Recording & Production Zone
- N2: Audio Silent Hall
- N3: Audio Products
- N4: Lighting and Stage Products / Stage Machinery & Theatre Technologies

N1 Zone 전시 및 교육 내용

주로 국내 방송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오디오 장비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열리고 있었다. 아마추어 가수의 라이브 공연, 모바일 방송 제작 부스 시연 등 적극적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아 가장 흥미롭고 활기가 넘치는 Zone이었다.

2018년 처음 참관했던 국제 음악 소프트웨어 무역협회 IMSTA(International Music Software Trade Association)는 2019년에도 규모를 늘려 참관했다.

YAMAHA 부스에서는 Yamaha X Dante Certification Training이 진행되고 있었다. Dante Level 1 & 2 training sessions를 소개하고 Audio and Networking concepts 기초 과정을 교육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YAMAHA 장비에서 Dante Domain Manager(DDM) 시연 및 진보된 Dante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의 시연도 진행되었다.



그밖에 Recording & Production Workshop에서는 DPA 최신 솔루션을 소개하고 Frequency Response Normalisation/Standardisation in Studio, Headphones 교육, IMSTA Global Audio Software 소개 등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N2~N3 Zone 전시 내용

공연장 PA ARRAY 스피커, 앰프와 소형 오디오 믹서, 오디오 케이블·커넥터 등 액세서리 부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다 보니 N1 전시장에서 봤던 익숙한 로고가 보였는데 알고 보니 유사 브랜드였다. 제품 라인업까지 비슷해서 한참 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N4 Zone 교육 및 전시 내용

Event Safety Work 부스에서는 Truss Structures/Safe Mounting/Lifting LED-Modules에 대한 안전 트레이닝이 진행되었다.

N4 Zone에서는 주로 공연 무대에 사용되는 Truss, 무대 조명, LED 조명, Back Wall Display 관련 제품이 전시되었다.

Concert Sound Arena

야외 공간에 콘서트 공연을 위한 대형 PA 시스템이 시연되었다. 6분 단위로 Brand가 바뀌면서 진행되어 여러 제조사의 사운드를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Music China

옆에서 진행되고 있던 Music China 전시관에 잠시 들어가 봤는데,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마치며

중국에서 전시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중국 방송 기기 업체의 제품을 직접 볼 기회가 되어서 매우 흥미로운 전시회 참관이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17회나 개최된 국제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스에서 중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했으며, 교육 세션 역시 중국어로만 진행이 되고 번역기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다. 다음에 혹시 참관 기회가 있으면 미리 WeChat 앱을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기술용어

딥페이크 Deepfake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합성하고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딥페이크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친숙하다.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꾸거나 다른 대상을 내 얼굴에 합성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었으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딥페이크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정교한 합성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와 관련한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딥페이크로 입 모양을 바꿔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또는 전혀 다른 인물이 말한 것처럼 조작한 영상이 등장하고 이는 가짜 뉴스에 신뢰성을 부여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명인, 일반인 등 누구나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에는 '자인 합성', '연예인 합성'을 해준다는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인권을 유

린하는 이들이 넘쳐난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의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약 8,000개에 이르던 딥페이크 영상이 2019년 14,698개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96%는 포르노로 소비되고 있다. 피해자는 미국과 영국의 여성 배우가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K-pop 여성 가수가 25%를 차지했다.

앞으로 딥페이크의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다.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와 윤리에 대한 성찰, 사회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속희 sh45@kobeta.com

KOBA 2020

2020. 05. 13-15 COEX, SEOUL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월간방송과기술 발행인 및 편집인 | 이상규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김대환, 남윤석,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전속희
인쇄인 | SJC성전
전화 | 02-3219-5637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등록일 | 2005년 6월 20일
간별 | 주간

기사제보 광고문의 |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2019

The Wind of Change toward the Future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바람

Insight
대분기의 ICT 혁명
ICT Revolution in the Great Divergence

Session I
방송에 가까이 다가온 기술
Technologies that Move Closer to Broadcasting

Session II
미디어를 통한 이해와 공존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through the Media

Insight _ 대분기의 ICT 혁명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혁신
김대유 _ 서울대 명예교수

Session I _ 방송에 가까이 다가온 기술



5G 세계 최초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임진국 _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팀장



OTT의 현황과
방송의 미래
성동규 _ 한국OTT포럼 회장 / 중앙대 교수

Session II _ 미디어를 통한 이해와 공존



중국 조선족 사회의
정보 문화와 미디어 발전 동향
최향단 _ 연변대 교수



지속 가능한
남북 방송 교류의 모색
최선욱 _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사회자
김민지 _ NH 전주MBC 아나운서

2019. 11. 14. (목)
10:30 ~ 17:30
한국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

주최 및 주관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참가비 무료

경품 :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애플 에어팟, DJI 오즈모 모바일3 폼보, 샤오미 미밴드, 스티벅스 상품권

